

공학교육의 방향

김종엽†

고려대학교

(cykimku@korea.ac.kr†)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공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바뀌어 가는 반면 인간의 수명은 100세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공학 분야에서는 어떤 교육을 함으로써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바로 사회에 적응하고 또 미래에 살아갈 수 있을 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 시대는 엔지니어에게 전문성 외에도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 연구 개발 능력 등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공학 교육은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